

한라시론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쓰레기 버리는 남자

나는 쓰레기 버리는 남자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나신다. 앞으로 그걸 것 같다. 아내 옆에 오래도록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클린하우스 앞에서 가끔 들었던 생동맞은 의문 하나. 왜 꼭 돈 내고 버려야 하지? 카드를 만들어 무게까지 달면서 말이다. 다른 나라에선 에코머니나 아토크라피라 하며 되려 지 역화폐로나마 되돌려주는 마당에... 바로 옆 '쓰레기는 자원'이란 홍보 문구가 너무 어색하다. 옛그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개발공사 PET병 자동차수거보상

기 이용실적이 갈수록 느는 모양이다. 패트병이나 캔을 집어넣으면 5~10원 상당의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일종의 재활용품 자판기다. 올 9월 제주시 12곳에 설치됐다. 지난 두 달 수거량이 벌써 6만개를 넘어섰고 이 용액 수도 매월 2000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150명이 이용한 셈이다. 참 다행스럽다. 이태전인가. 연수 차 독일 한 마트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사회공헌위원들이 너나없이 바로 도입하자며 제주개발공사를 재촉했던 때가. 그 이듬해 제주올레와 정방폭포, 사려니 숲길에 시범으로 처음 선보였다. 올해는 제주시 하나로마트와 재활용도움센터, 그리고 공항으로 확대된 것.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프로젝트. 지방 공기업이 모처럼 사회적 가치에 주목, 작심하고 추진한 일이다. 담당 직원들의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주인사회적협동조합이 한 몫 거들고

있어 더욱 그렇기도 하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또 다른 움직임도 눈에 띈다. 애월에선 '일회용품 쓰지말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주민과 동네상점이 함께 나서서 진행 중인 공익캠페인이다. 여기에 30여 개가 넘는 편의점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애월읍 일회용품 없애기'단은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대신 천으로 만든 에코백이나 종이봉투를 쓴다. 이를 위해 600개의 에코백과 종이봉투 3만장을 보급했다. 에코백은 주민에게 기부받거나 호텔에서 받은 침대시트를 재활용해 제작한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도 하나 들쭉 동참하고 있다. 제주해안을 따라 여행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바이클린'. 사회적기업 바이크웨어링이 내놓은 생태여행 서비스다. 모집 때마다 곧바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상품이다. 마을기업 '함께하는

그날'은 쌀가루를 원료로 분해하기 쉬운 친환경 빨대를 만들어 판다.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비칠지 모른다. 플라스틱의 역습... 정말 충격적인 쓰레기 대란, 환경재앙 앞에선. 그냥 사소한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힘이자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이다. 그레타 툰베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앞으로 존재하지 아닐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3년 전부터 '등교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제 열 여섯에 불과한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에 나서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노려보던 이 작은 영웅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 세대가 이들에게 응답해야 할 때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사설

내년 제주도 살림살이 꼼꼼히 심의해야

내년 제주도 살림살이 규모가 나 왔습니다. 거의 6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10.17% (5378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만 보면 2018년(13.5%)에 이어 2년만에 다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으로 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총 5조 8229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전년 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5611억원입니다. 지방채는 내년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440억원 등 총 2500억원이 넘습니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제주경제 활력화와 사회복지에 방점을 두고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밝혔듯이 내년엔 지

방채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재정여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발등에 불로 떨어진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여서 빛을 낼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됩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공공정사를 신속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롯 효율성과 적절성, 불요불급한 예산 등 들여다봐야 할 게 많습니다. 예산심의권을 권 도의 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배분됐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눈이 멀어 자칫 예산 심의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ETA 도입 관광업계 우려 목소리 경청하길

정부가 추진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앞두고 도내 관광업계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외국인 입국시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입국 72시간 전까지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제주에서 먼저 내년 하반기 시범 적용한 뒤 2021년 상반기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적 관광도시인 제주가 테스트 베드가 된 것입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 등을 사전에 거르기 위한 취지입니다. 비자면제 제도를 약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와 도관광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12월 정부에 건의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제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2018년 기준 사전여행허가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122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은 42.4%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큼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무비자제도와의 상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 등 무비자제도의 폐해는 개선이 필요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시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 지 사전에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타당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한을 정해 두고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는 식이나 다름없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정책이라 할 지라도 밀어붙이기만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편집국 25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상민 행정사회부 차장 hasm@ihalla.com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 죽음을 앞둔 주인공 피터의 삼촌은 어린 조카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 길로 강도의 뒤를 쫓은 피터는 범인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피터는 삼촌이 죽기 직전 범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강도짓을 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뻘 외면했다. 현실에선 누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을까. 당장 머리 속에 정치인이 떠오른다. '정치인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큰 힘을 휘둘렀는지를 반증한다. 제주시가 인위적으로 북개한 한천 콘크리트의 300m 구간을 내년부터

모두 철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콘크리트를 받치기 위해 촘촘히 박힌 기둥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개천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때 이런 문제를 처음 드러냈다. 당시 북개구간을 중심으로 하천이 넘쳐 4명이 사망·실종하고 주택 74동이 침수됐다. 북개천이 집중 호우 땀 재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제주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380m 구간 중 80m만 철거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오판이었다. 2016년 태풍 때 또 북개천이 범람해 주택이 침수됐다. 그러나 당시 잘못된 결정에 관여한 사람 중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결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어느 한 정치인은 더 큰 권력을 갖으려 선거 때마다 캠프를 기웃거린다. 어디 이뿐이라. 교통·하수·쓰레기 대란 등을 겪으며 무책임한 정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손해는 오로지 도민 몫이다. 그래서 정치가 '힘'만 쫓는 시대는 암울하다. 이걸 바꾸지 못하면 우리 영화 속 피터보다 더 큰 절망 속에 살아야 한다.

뉴스-in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의 기싸움(?)

공론화특위 구성 결의안 갈등

○... '제2공향 도민공론화 지원 특등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둘러싸고 의회 내부 갈등의 깊은 골이 표출되는 분위기가 감지. 김태석 의장이 해당 결의안의 심사기간을 정한 가운데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1일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강화한 '도의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 의회 안팎에서는 규칙 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도민에게 의회 내 갈등과 자중지란으로 보여질 수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 오은지기자

예산 증액 효과 미미할 듯

○... 제주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7.2% 늘었으나 증액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을 전망이다. 제주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7283억원으로 올해 1조4744억원보다 17.2%(2539억원) 증가했으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

는 사업비 증가가 아닌 대부분 국비매칭 사업비 등에 편성.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다소 늘었지만 대부분 국비매칭 사업비 등으로 편성됐다"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증액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타당성 검토위 비공개로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2월 출범시킨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에 대해 명단은 물론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 문예재단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명단 공개에 부담감을 나타냈고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그 내용이 알려지는 일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언급. 이 관계자는 "최종 논의의 결과가 나오면 외부에 알릴 예정"이라며 "검토위 결과를 다시 이사회 안건에 올리느냐, 마느냐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첨언. 전선희기자

부 고 강형근(前 화북초등학교 교원) 어머니 제주고씨 예든(향년 91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12일 16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14일(목) ▶발인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함덕제주장례식장 2층 특분향실 ▶장 지: 성산읍 수산리 안지기술(성산읍 수산리 2880-5번지) 아들 강형근 며느리 이호순 형조 강연숙 사 위 정성두 애숙 오영권 여숙 천경우 은숙 양재호 손자 강승우 승필 손 부 공주미 ※ 연락처: 강형근 010-8661-1357 함덕제주장례식장 727-4444

부 고 강덕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부인 제주고씨 양숙(제주대학교 교수, 향년 64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13일 06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14일(목) ▶발인일시 및 장례미사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 동광성당 ▶발인장소: 동광성당 ▶장 지: 천주교 형사명 공원묘지 남편 강덕수 아들 강한열 (비오로) 딸 강바다 (아네스) 사위 노종규 (리파렌) 안준혁 (가브레엘) 외손자 노하울 ※ 연락처: 강덕수 010-2623-7511 강한열 010-4221-7891 강바다 010-5163-7511 강바람 010-9616-7511 노종규 010-9563-2552 안준혁 010-9029-5494

부 고 고경호(前 제주서부소방서 소방 행정과장) 어머니 남평문씨 순하(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13일 12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14일(목) ▶발인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들 고경호 며느리 김진화 중호 중호 이정은 딸 고정열 사 위 현찬범 경희 양성수 경자 양대운 성자 김명건 ※ 연락처: 고경호 010-5661-2240 고중호 010-3698-6086 현찬범 010-3376-0504 양성수 010-2698-7266 양대운 010-4609-6507 김명건 010-2696-6571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그랜드보청기 가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서! 기다려주세요!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